

#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김주연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아동가족상담학과

Juyeon Kim(sarah0@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의사소통능력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지역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총 11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검증 단계를 거쳤으며 Sobel test를 통해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의 빈도와 의사소통능력은 학교적응과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은 의사소통능력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지각된 사회적지지(빈도)와 의사소통능력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학교적응 사이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사회적지지 | 학교적응 | 의사소통능력 | 매개효과 | 다문화가족 |

###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outh Korea. The high school students from one to three degree in the school, who are joined the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Gyeonggi-do province,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for this research. Total 110 were analysed using SPSS version 23.0, and used 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proposed by Baron and Kenny(1986), to estim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 variab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social support, communication skills and school adjustment were significant associated each other, and had positive correlations. Secondly, communication skills of multicultural families'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 keyword : | Social Support | School Adjustment | Communication Skills | Multicultural Families | Mediating Effects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 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최근 인구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1].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국내 출산율 및 노동력 감소로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적응은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적응 관련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추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 2010년도 전체 학생 수의 0.5%에 머물렀던 다문화학생 비율이 2014년에는 1.07%로 매년 증가했으며, 전체 다문화학생 중 초등학생은 약 70%, 중학생은 약 20%, 고등학생은 약 1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다문화학생에 관한 연구논문을 등재된 학술지에서 검색해 보면, 주로 초등학생과 학령 전 자녀에 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 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간된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의하면[3],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상급 진학률이 저조하며, 학교 이탈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학교 이탈의 주 원인으로는 학교 부적응과 학업 수행의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업성취도를 포함해서 학교 및 가정에서의 지지적 자원 부족을 학교 부적응 위험요인으로 보았다. 그 외,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4], 여전히 팽배한 사회적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그에 따른 학교부적응 및 낮은 진학률을 현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처한 주된 문제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매체의 문제의식은 윤경희와 장일식[5]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적응에 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6][7]. 윤경희와 장일식[5]은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경

우, 다문화가정 내의 정체성 혼란과 갈등, 학업에 대한 부담, 한국어 실력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보고하였으며,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좌절, 소외감으로 학교 이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5][6]. 박성훈과 전영실[7]은 소속되어 있는 사회 관계망에서 배제된 경험과 차별 경험을 많이 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일수록 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더불어, 비행과 부적응을 겪고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학대 및 방임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가족 내 지지자원 강화를 위한 사회통합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6][7]. 이렇듯, 정책적 지원은 물론 가족 내 지지자원을 포함한 사회적지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주요 보호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상호, 김대균, 박균열[8]은 학업부진이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국어 구사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기도 하지만, 가정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은 자녀의 경우 언어 습득력이 늦고, 의사소통의 위축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학업부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정경숙, 송민경[9]은 청소년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구사력은 오히려 자존감과 자긍심을 키우지만, 낮은 교류적 의사소통능력은 학교부적응은 물론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적지지와 같이 학교적응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학교적응을 향상시킬 보호요인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재된 국내 학술지 중 온라인에서 검색이 가능한 논문은 200편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요인관련 연구는 50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회문화적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당면한 심리사회적 상태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

를 살필 수 있는 진단적인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 다문화가정 고등학생들이 당면한 학교적응을 주제로 학교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능력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적응이란, 진화론적 관점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환경에서 잘 기능하기 위해서 개인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며[10], 환경과 개인의 상호적 관점으로 개인의 요구에 따라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말하기도 한다[11-13]. 같은 맥락으로, 학교적응은 학교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로 학업을 기본으로 또래, 교사와의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환경 및 자신의 요구에 맞게 기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14-16]. 이희정[17]의 청소년 학교적응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학업수행능력 과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의 주된 요인이라고 하였다. 교사와 또래의 정서, 물질, 정보 및 격려

등의 지지 등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학교적응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다[18][19].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모든 학령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신혜정, 서영석[15]과 이희정[17]의 연구에 의하면, 전학년에 걸쳐서 부모의 지지는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높은 학업성취도를 요구하는 한국의 사회·교육적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또한,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감을 높이고 학업동기를 고취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모상현[20]은 심리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교사와 또래들과의 긍정적 정서 지지와 친밀감은 사회적 위축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장성진과 김진숙[21]은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중 학교에서의 지지자원도 있지만,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등과 같은 정책적지지 자원도 다문화청소년들이 적응적으로 기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인적 및 심리사회적지지는 적응적으로 학교에서 기능하게 하는 보호 요인으로 살필 수 있다[22].

### 2.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기술로, 경청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필요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전하는 의사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23]. 두진영[26]은 청소년기의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지성과 김화수[2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이 적응적인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사회적지지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홍정은[2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와 친구의 지지가 자기표현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등학생의 경우 친구의 지지가 자기표현력을 높이는데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 중 사회교육서비스 제공으로 향상되고 발달시킬 수 있음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서 알 수 있으며, 학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청소년 대상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3][27].

### 3. 의사소통능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간호욱과 박완재[24]는 청소년들에게 의사소통능력은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해했다. 더불어, 소극적인 의사표현이나 낮은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학교부적응을 경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하였다[24][28].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의사소통능력과 학교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언어문제가 학교의 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룡[31]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은 일반가정의 청소년의 적응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의사소통 및 자기 표현력에 있어서는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낮은 정도를 보였으며, 학교적응 유연성 부분에서도 경미하지만 낮은 적응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32]. 학교급별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이청하[33]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의사소통에 따른 적응력과 생활만족도는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능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14명이 자기보고식 설문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수거된 자료 중 불성실한 대답이 많거나 자료누락이 많은 4부를 제외한 총 11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총 110명의 성별을 살펴보자면, 남학생 70명(63.6%), 여학생 40명(36.4%)의 빈도를 보였으며, 1학년 86명(78.2%),

2학년 20명(18.2%), 3학년 4명(3.6%)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88명(79.1%)이 상업계 고등학교(특성화 학교 포함)을 다니고 있었으며, 22명(20.9%)은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아버지는 한국출생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결혼이주 전 국적은 중국이 55명(50.0%), 고려인 20명(18.2%), 베트남 16명(14.5%), 일본 7명(6.4%), 그 외 우크라이나, 몽골, 러시아, 태국 등 12명(10.9%)의 빈도를 보였다.

## 2. 연구도구

### 2.1 사회적지지척도

한국의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Malecki 와 Demaray[35]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사회적지지 척도(Th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CASS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지지의 '빈도'와 '중요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도록 분류되어 있으며, 총 40문항으로 '부모, 학급교우, 친한 교우, 선생님들'에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지를 각 10문항씩으로 구성하고 있다. 4가지 종류의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제공지지, 물질적지지, 그리고 평가적지지' 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사회적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지지의 측정은 '전혀 없다' 1점부터 '항상 있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사회적지지 척도의 총점은 40점부터 2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원 척도 전체점수의 신뢰도는 .96 (Cronbach's alpha)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척도 역시 .92부터 .96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97로 전체점수의 내적 일치도와 .91부터 .94까지의 하위척도 신뢰도를 보였다.

### 2.2 학교적응 척도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김지혜, 김정남, 남정현, 천성문[36]이 개발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Likert식 척도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적응(교우적응)', '학교공부(학업적응)', '학교교사(교사적응)', '학교생활

(학교생활적응)’의 4개 영역에서의 적응정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1점부터 1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이며, 본 연구에서는 .80로 나타났다.

### 2.3 의사소통능력 척도

다문화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허경호[37]가 개발한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 2003)를 사용하였다. 5Likert식 척도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범위는 1점부터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2이며, 본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의사소통, 그리고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지지와 학교적응과의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38]의 매개효과 분석법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산출하였으며, 왜도 및 첨도의 점수로 정규성을 검증하였다[표 1]. 기술통계 분석결과 중에서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보고한 학교적응의 총점은 86.75( $SE=.83$ )점으로 중간점수 인 87.5점보다 근소한 차이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의사소통능력의 경우는 총점이 54.73( $SE=.92$ )로 의사소통능력을 평균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자면 사회적지지의 빈도 및 중요도 모두 평균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 변인들은 왜도 절대 값 2.0, 첨도의 절대 값 7.0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본 연구의 정규을 검증하였다 [39].

### 2.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면, 학교적응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r=.380, p<.001$ )과 사회적지지(빈도)( $r=.224, p<.05$ )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표 2]. 그러나, 학교적응과 사회적지지가 중요하다고 지각한 중요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03$ )[표 2]. 주 변인들과 하위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2]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친구( $r=.407, p<.001$ )’, ‘공부( $r=.206, p<.05$ )’, ‘생활( $r=.203, p<.05$ )’는 의사소통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교사의 사회적지지 빈도’의 경우는 다문화가

표 1. 주 변인들의 기술통계

	총점(오차)	평균(오차)	왜도(오차)	첨도(오차)
학교적응	86.75(.83)	2.24(.02)	.04(.23)	.12(.45)
의소소통능력	54.73(.92)	3.38(.03)	.15(.23)	.42(.45)
사회적 지지				
빈도지각	149.57(3.73)	3.73(.09)	.17(.23)	.15(.45)
중요성지각	90.48(1.59)	2.26(.03)	.02(.23)	.31(.45)

표 2. 주 변인들과 하위요인들의 상관분석

	1	1_1	1_2	1_3	1_4	2	3	3_1	3_2	3_3	4	4_1	4_2	4_3
1. 학교적응	1													
1-1.친구	.788 ***	1												
1-2.공부	.656 ***	.206 ***	1											
1-3.생활	.630 ***	.222 ***	.474 ***	1										
1-4.교사	.404 ***	.209 **	.239 ***	.114	1									
2. 의사소통 능력	.380 ***	.407 ***	.206 *	.203 *	.165	1								
3.사회적지지빈도	.224 *	.203 *	.159	.201 *	.096	.208 **	1							
3-1.부모	.033	.041	.120	.121	.035	.204 *	.744 ***	1						
3-2.교사	.132	.108	.150	.090	.084	.133	.772 ***	.591 ***	1					
3-3.친구	.243 **	.199 *	.161	.197 *	.143	.256 **	.797 ***	.355 ***	.438 ***	1				
4.사회적지지중요	.103	.168	.115	.011	.147	.097	.499 ***	.322 ***	.527 ***	.403 ***	1			
4-1.부모	.115	.145	.105	.009	.088	.061	.432 ***	.366 ***	.571 ***	.239 **	.836 ***	1		
4-2.교사	.159	.186	.116	.070	.107	.206*	.389 ***	.310 ***	.479 ***	.196 **	.794 ***	.711 ***	1	
4-3.친구	.079	.134	.126	.121	.163	.157	.292 ***	.063 *	.231 **	.442 ***	.688 ***	.366 ***	.227 ***	1

\*\*\*  $p < .001$ , \*\*  $p < .01$ , \*  $p < .05$

정 고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 3.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38]이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의 결과와 같다. 학교적응 하위요인들과 사회적지지의 경우,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빈도의 하위요인 중 ‘친구의 지지의 빈도’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친구( $r=.199, p<.05$ )’, ‘생활( $r=.197, p<.05$ )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빈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중요도는 상관분석에서 주변인

들과 상관관계를 유의미하게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회귀분석에서도 영향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1단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검증결과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beta=.208, p<.01$ ), 2단계에서도 매개변인인 의사소통능력이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beta=.380, p<.001$ ). 이로써, [38]이 제시한 1,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1단계)과 종속변인(2단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제시한 조건인 2단계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beta=.370, p<.001$ ) 3단계에서의 영향력( $\beta=.380, p<.001$ )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매개효과의 영향력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 3.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N=110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 <sup>2</sup>	F
1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지지	.074	.033	.208	2.212*	.208	4.892*
2	학교적응	의사소통능력	.273	.064	.380	4.268**	.380	18.219**
3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	.012	.023	.047	.510*	.383	9.177**
		의사소통능력	.266	.066	.370	4.054**		

\*\* $p < .001$ , \* $p < .01$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Sobel test 검증결과( $Z=1.985, p < .001$ )가 1.96 이상이므로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학교능력 사이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였을 때, 고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주 목적이 있다.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다문화센터를 이용 중인 고등학교 1, 2, 3학년 남·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를 살펴보자면, 의사소통능력과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평균보다 높은 정도를 보고한 반면, 학교적응의 경우 평균에 가까운 근소하게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부적응을 보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에 언급한 신문기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일반가정

청소년과 학교적응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적응적이라고 보고된 우룡[31]과 김승경[40]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참여자 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상태 외 요인 차이가 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연구에서의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에 대한 만족감을 평균이상 비율로 보이고 있고,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하여 평균이상이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지영[41]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경제적 소득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건강한 가족기능은 자녀의 부적응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추후 다문화가정 사회경제적 상태 및 지각된 가족기능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추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면, 학교적응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지지(빈도)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학교적응과 사회적지지가 중요하다고 지각한 중요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적지지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자주 제공되고 있느냐에 관련해서는 사회적지지의 빈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혜정, 서영석[15]과 정승현, 심미영[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기표현 및 공감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능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상관관계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22][23].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의사소통능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능력은 지각된 사회적지지(빈도)와 학교적응과의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빈도)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제공된 사회적지지가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통해서 학교적응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사회적지지의 반복적인 제공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할 상황에 맞게 표현하며, 필요한 요구를 명료하게 전달할수록, 학교에서 높은 과업성취와 원활한 또래관계를 비롯해서 학교적응 정도를 높인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23][25][28].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 정도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통합과정에 정책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둘째,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지지와 관련하여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해서 제공하는 사회적지지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조언하며, 교육 및 상담서비스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중요도는 의사소통능력 및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신, 사회적 지지의 빈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 제공(빈도)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더불어, 현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교적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찰시켜 추후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제시한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제안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 대상자들은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으로,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형태로 인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익숙한 일반가정의 청소년과 달리, 다른 문화의 이해와 적응에 관한 이슈가 고려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다. 즉,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 입국 혹은 탈북민, 그리고 노동이민자로 구성된 가정 및 입국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며, 경기도 지역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다문화가정 형태의 학생들에 대한 연구와 지역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방어적인 답변이나 자신의 의견이 아닌 검사자를 위한 답변 혹은 불성실한 응답 등의 가능성을 내포한 자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다문화가정 고등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설정한 사회적 지지와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 객관적인 자기보고식 측정 이외에 실험연구,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 및 중단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1] [http://www.mois.go.kr/f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Id=60528](http://www.mois.go.kr/f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Id=60528)
- [2]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

- ID=343&boardSeq=57128&lev=0&searchType=n  
ull&statusYN=W&page=1&s=moe&m=030209&  
opType=N
- [3] <http://www.fnnews.com/news/201806290928081660>
-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2/0200000000AKR20180622062200371.HTML?input=1179m>
- [5] 윤경희, 장일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예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pp.147-178, 2015.
- [6] 최윤미, 임성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제5권, 제2호, pp.15-26, 2012.
- [7] 박성훈, 전영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특성에 관한 연구:일반적인 비행요인과 다문화 특성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제11권, 제3호, pp.55-75, 2017.
- [8] 이상호, 김대균, 박균열,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력 함양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36권, pp.239-258, 2015.
- [9] 전경숙, 송민경,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1호, pp.305-330, 2011.
- [10] R. E. Ployhart and P. D. Bliese, *Individual adaptability Theory: Conceptualizing the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aptability*, A prerequisite for Effective Performance within Complex Environments, L.G. Pierce and E. Salas, Eds. Elsevier, 2006.
- [11] R. D. Felner, M. Aber, J. Primavera, and A. Cauce,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in High-Risk Adolescents: An Examination of Environmental Mediat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3, No.4, pp.365-379, 1985.
- [12]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13] R. W. Lent, “Toward a Unify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on Well-being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1, No.4, pp.482-509, 2004.
- [14] 고유미, 이정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제17권, 제1호, pp.49-63, 2009.
- [15] 신혜정, 서영석,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중,고)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 간의 구조모형 분석,” 상담학연구, 제7권, 제1호, pp.117-130, 2006.
- [16] 정승현, 심미영, “청소년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275-284, 2014.
- [17] 이희정, “도시 청소년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와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 예측변인,” 교육문화연구, 제21권, 제2호, pp.27-56, 2015.
- [18]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pp.300-314, 1976.
- [19] S. Cohen and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No.2, pp.99-125, 1983.
- [20] 모상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제53권, pp.67-93, 2018.
- [21] 장성진, 김진숙,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8호, pp.77-102, 2012.
- [22] 한혜성,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 [23] 조슈아박, 김평화, 김근희, “토론 프로그램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유능

- 감에 미치는 영향,” *Speech & Communication*, 제15권, 제1호, pp.170-198, 2016.
- [24] 간호옥, 박완재, “학교 부적응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2권, 제3호, pp.5-23, 2005.
- [25] 홍정은, *사회적 지지와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표현능력,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남녀공학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 [26] 두진영,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자기표현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정신보건*, 제14권, pp.1-29, 2008.
- [27] 심미라,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석사논문, 2008.
- [28] 김지성, 김화수,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한부모가정학*, 제5권, 제1호, pp.24-35, 2015.
- [29] 좌현숙, “청소년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6호, pp.1-28, 2012.
- [30] 김수진, 홍창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호, pp.195-211, 2017.
- [31] 우룡, “도시와 농어촌지역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실태분석,”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1권, pp.25-54, 2007.
- [32] 백지숙, 김진, 정효경,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제12권, 제1호, pp.127-141, 2014.
- [33] 이청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의사소통 삶의 질 비교: 학교급별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석사논문, 2015.
- [34] 이종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자아 정체성 및 학교적응의 상관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2011.
- [35] C. K. Malecki and M. K. Demaray, “Measuring Perceived Social Support: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CASSS),”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39, No.1, pp.1-18, 2002.
- [36] 김지혜, 김정남, 남정현, 천성문, “고등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논단*, 제7권, 제1호, pp.39-56, 2008.
- [37] 허경호,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회*, 제27권, 제6호, pp.380-408, 2003.
- [38]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39] S. G. West, J. F. Finch, and P. J. Curra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1995.
- [40] 김승경,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p.1-203, 2013.
- [41] 이지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의 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7, No.2, pp.105-125, 2012.

저 자 소 개

김 주 연(Juyeon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학과(석사)
- 2015년 10월 : La Trobe University 보건학과(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아동가족

상담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심리사회적 재활, 아동·청소년심리상담